

신명기 6:4-9의 ‘가르치라’는 명령을 통한 유아기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한 고찰: 부모의 마음을 중심으로*

**Discussion about the purpose and details of biblical parenting during infancy
through a command to teach in Deuteronomy 6:4-9: Focused on parent’hearts**

박은호 (Park, Eunh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biblical evidence from Deuteronomy 6:4-9 that parents are given a command to teach their children and to suggest a direction of biblical parenting. Nowadays, several theories regarding and parenting are developed and suggested. However, parents feel more confused and anxious about the various theories and suggestions. The cause of the confusion and anxiety that these days parents experience are caused by the fact they have lost the nature of parenting that was instructed by God. Therefore, the purpose, detail, and instruction of biblical parenting are closely looked at in Deuteronomy 6:4-9. First, the purpose of parenting is to teach them to fear God. Second, the detail of parenting is to love God, the only one who is good. Third, the instruction of parenting needs the detail of education to be learned and internalized and last eternally. Lastly, the influence of education needs to be expanded from individual to community.

This article suggests that early childhood is the prime period to be educated and internalized the command from God, which is teaching, the reason i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language, imitation, and strong recognition development in infancy. The procedure of following the command suggests that parents need to be aware that although they are the first teacher of their children, yet they don’t have the ability to teach the children, and they need to fear God before teaching the children to fear God. In

* 2023년 11월 9일 접수, 12월 3일 최종수정, 12월 14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상담대학원 조교수, 서울 동작구 사당로 143, ehpark9090@gmail.com

conclusion, biblical parenting is parents becoming the first ones to love God, convey it to children through communication, and internalize it.

Key words: parenting, God's command to teach, love of God, internalize of mind, early childhood

I. 서론

현대에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아동연구와 인지발달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부모 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수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정희정, 2016).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P.E.T(Parents Education Training), A.P.T(Active Parenting Training), S.T.E.P(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을 비롯하여 부모의 자질 향상, 의사소통, 사회성 증진, 부모의 기대감 탐색 등 부모역할 수행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의 강조가 정점에 있는 만큼 자녀 양육과 교육 방침에 대한 연구와 담론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들은 방대하고,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 부모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시대에 이르렀다(정희정, 2011: 196 ; 지성애, 2016: 3). 이에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부모교육의 내용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양육의 공동 책임, 가사와 양육의 분담,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리더십, 4차 산업혁명에 이르는 양육 정보들로 매우 다양하다(한유진 외, 2019: 87). 다양한 부모교육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국가와 자녀를 위한 부모 개인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자녀 양육 자체가 큰 책임감을 수반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현대사회의 변화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심리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자녀교육 방향의 불확실함으로 인해 불안하다(진다희, 2022: 47 ; Kahneman, 2004: 432 ; 백영숙, 2007).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불안과 고민은 기독교인 부모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이라는 의식은 있지만, 양육자로서의 부모 역할과 신앙 교육 모두에 어려움을 느끼는 현실이다. 다양한 부모교육과 관련된 정보와 프로그램들은 자녀의 문제 행동에 역점을 둔 서구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교회와 가정에는 적합하지 않다(채경선, 2006).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도 마더와이즈 프로그램, 유니게 프로그램, 아름다운 부모학교 프로그램 등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들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한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같다. 성경적 원리에 의한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목표는 행동 수정에 한정될 수 없다. 성경은 순종의 결과로서 마음의 태도와 동기의 변화를 말한다. 마음의 태도와 가치, 신념이 변화될 때, 감정과 행동의 변화가 수반된다. 이 글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역할 수행의 심리적 어려움은 부모 마음의 욕구와 기대에 있다고 전제한다. 마음은 인간이 신념을 가지고 실행하는 중심이며(벤전 3:4), 행동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경배의 영역, 회복되어야 할 영역으로 마음을 들고 있다

(신 30:14 ; 잠 4:23 ; 렘 31:33 ; 눅 6:43-45 ; 약 1:14). 그동안 쉼마를 중심으로 한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 가정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김호식의 연구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을 오직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가정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김호식, 2004). 송지현은 쉼마를 통해 한국 기독교 가정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송지현, 2008). 김선환은 자녀를 위한 부모 양육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연구하였다(김선환, 2011). 이미향은 교회에만 맡겨진 자녀 교육의 현실에서 부모는 자녀의 목회자임을 강조하고 가정사역의 소중함에 주목하였다(이미향, 2012).

현대사회의 모습은 급격하게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절대가치를 부정한다. 그러나 부모의 권위를 통해 제한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란 아이들로 인한 교육의 실패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Zuck, 1997: 47). 개인의 자율성과 절대가치 중립의 문제점은 부모의 권위 상실과 관련이 있으며 자녀 양육을 위한 인간지향적인 부모 마음의 동기를 말해준다. 신 6:4-9 본문에 나타난 성경적 자녀 양육의 근본적인 원리와 방향성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담지해야만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곧 부모의 내적 동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자녀 양육이 가능하다. 부모 마음의 태도, 동기가 하나님과 관계있을 때 자녀교육은 열매를 맺게 된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므로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리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모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다음으로 신명기 6:4-9을 통해 성경적 자녀 양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알아보고, 자녀 양육 실천의 중점을 유아기에 두고자 한다. 유아기의 자녀 양육 모델, 양육 태도, 자질 훈련, 예배와 기도 등의 연구는 다수 있으나(박경숙, 2007 ; 이영주, 2007 ; 김홍순, 2017 ; 김성원, 2022), 유아기 자녀의 양육을 위한 성경적 목표와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아기는 전 생애를 위한 신앙의 기초와 행동 지침의 토대가 된다. 그 성경적 근거는 유아기에 형성된 것은 평생 영향을 미치고, 유년기에 추구한 것은 장년기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에 둔다(잠 22:6 ; Monroe. 이원영 역, 2022: 25).

II 펴는 글

1.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사람은 생명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생명이 없어지는 죽음의 순간까지 전 생애에 걸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인 변화와 안정의 과정을 거친다(신명희 외, 2019: 19). 사람은 태어나서 단계별 발달에 따라 급성장하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또 각 발달 단계에서 자신의 태도를 형성하는 도식에 따른 단계별 발달 과업의 성취는 다음 발달 단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큰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부모의 양육이다. 자녀 양육을 건강하게 수행하기 위한 도움을 부모교육이라 한다. Croake와 Glover는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해주기 위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는 부모의 목적 있는 학습활동이라고 했다(박성연 외, 2014: 16). Grotbert는 부모교육은 역할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정희정, 2016: 26). Hamon과 Brim은 일생동안 개인이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태도, 가치,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며 주변 환경과 대중매체로부터 교육적 영향과 자원을 습득하는 비형식적 교육까지 부모교육의 영역으로 보았다(박성연 외 2014: 16). 부모교육의 목적은 부모로 하여금 효율적인 부모와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돕는데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익히는 것을 돕는데 있다(윤혜경 2020: 17). 구체적으로 부모교육의 목적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대화법, 격려와 같은 특정한 기술의 훈련 영역,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 정보의 전달과 습득의 영역, 부모의 문제 행동, 양육 태도, 자기 인식을 통한 자질 훈련, 가치 체계의 변화를 위한 영역들로 구성된다(윤혜경 2020: 17 ; 연미희·김진숙 2001: 45-47).

1) 부모교육의 목표와 내용

부모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살피기 전 먼저 부모 교육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면, 부모교육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방식으로 존재해 왔다. 현대와 같은 의미로서의 부모교육은 아니지만, 가정에서의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동이 교육을 통해, 국가의 힘을 강하게 하는 사회구성원이 되는 것을 강조하며 7세까지는 가정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정옥분·정순화, 2016: 60-61). 로마 시대에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이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자녀 양육을 어머니의 중대한 임무로 여겼다. 중세 시대에는 자녀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모의 혹독한 교육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근대에는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코메니우스가 자녀는 최초의 6년 동안 어머니의 무릎에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하였다(정옥분·정순화, 2016: 60-65). 이를 부모교육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루소와 페스탈로치에 이르기까지 가정교육에 대한 강조는 계속되었다(정옥분·정순화, 2016: 66-68). 20세기에 들어서며 과학적인 관점에서의 인간발달 연구와 함께 자녀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전통 한국 사회에서도 가정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조선 시대의 신사임당과 세종대왕의 자녀 교육법은 현대에 재조명되기도 했다.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대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부모교육의 내용과 역할에 대한 관점은 동일하다. 루소와 프뢰벨은 부모가 자녀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에 관점을 두었고 페스탈로치는 도덕성, 사랑, 신뢰와 같은 품성에 초점에 두었다. 코메니우스는 신앙교육, 도덕, 건강, 언어 등 인간성의 성장을 강조하였다. 여러 학자의 자녀교육에 대한 공통된 강조점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도덕성과 신앙, 인격, 직업 기술 등을 교육한다는 것이다. 자녀교육의 중점 연령에 대해서도 학령기전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는 비슷하다.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자녀교육의 목표와 내용, 역할은 분명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부모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직업적인 기술뿐 아니라 종교와 관련된 지식, 도덕성과 인격의 형성에 관심을 두었다. 전통적으로 자녀의 역할 중에는 가업을 잇고 부모를 봉양하는 경제적 가치로서의 의미도 있었으나, 자녀 양육의 목표와 교육의 내용과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식과 가치관을 전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의 방식대로 삶을 살도록 부모 스스로 본을 보이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과 자질로 가르쳤다. 예를 들면, 부모는 농사를 지으며 자식에게 농사를 가르쳤고, 목수는 자신의 기술을 자녀에게 보여주며 기술을 전수하는 등 가르침의 목표가 분명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자식들에게 부모가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따르게 할 삶의 방식이 모호하다. 따라서 현대의 자녀 양육의 교육 내용과 부모의 역할은 재정적이고 물리적인 보호를 통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로 한정되었고, 도덕성이나 인격, 신앙,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를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하는 기능은 적어졌다(Senior, 이경식 역, 2014: 215-216 ; 문무경, 2017).

2)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과 원인

오늘날 자녀 양육과 역할 수행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부모의 구체적 현실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은 첫째, 부모 역할로서의 정보의 수집과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다. 현대의 부모교육이 자녀 양육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현대사회의 문화, 가치관에 따라 부모교육의 내용이 자주 바뀌게 되었다(이하정, 2005). 이로 인해 현대의 부모역할은 정보의 수집과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일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자녀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목표는 있으나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조급한 부모의 마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과 방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불안하고 조급한 부모는 새로운 이론이나 상충하는 이론을 시도하며 당황해 한다. 현대 부모의 불안은 사회의 변화와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 구분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예를 들면, 최근의 미래사회에 대한 예견은 소수 엘리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슈퍼파워 세력에 의한 디지털 독재를 만들어 낼 가능성(유발 하라리, 2018: 129-134)과 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양육 방식체계였다. 이러한 체계의 도래는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사용 기술이 중요하다고 한다. 양육자는 이미 방대한 교육 정보와 정보 수집에 가치를 두었는데, 뒤이어 수집된 이론은 정보의 양이 아닌 정보 사용을 위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당황과 혼란을 경험한다. 또 '대인 관계기술의 개발과 지식 습득의 중요성'에서 '문제해결 능력의 중요성'으로 방향이 전환되자 부모는 다급하게 되었다. 이에 부모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내용변화에 따른 대처는 물론이거니와 부모 역할에서도 혼란을 느낀다.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여러 새로운 것을 따르고 시도하는 동안 아이들은 성장해 버려, 부모의 자녀 양육은 결국 시도로 마치게 되는 현실이다. 부모에게는 불안뿐 아니라 실패감이 가중되고, 점차 자녀 양육은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둘째, 자녀 양육의 목표로서의 문화적 가치와 신념으로 대두된 자녀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압박이다(Hays, 1998: 67-68).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의 미래가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녀 양육의 목표로 설정된 행복은 가치 있는 여러 활동들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행복은 매우 추상적인 목표로 막연한 것이다.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성공과 행복은 현대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명령을 담지하여 전수하는 양육자보다는 문화에 부응하는 양육의 전략가가 되기 쉽다.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문화적 전략과 방법에 휩쓸렸듯이 유년기에서 청소년에 이르는 시기에 이와 같은 목표로 양육 받은 자녀 세대는 '안정과 성공'이라는 부모의 목표물을 그대로 전수받고 있다. 한동안 사회전염과 같이 '공무원 되기'에 집중하였으나 이제는 '의대 열풍'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현상이 그 예로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 변화로 인한 역할의 어려움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은 양육 스트레스 외에도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적어진 자녀의 수로 인해 아이 한 명당 들여야 하는 시간의 증가, 높아진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과 요구 수준, 맞벌이 부부의 역할 등이다

(지성애, 2016: 11-13). 마가렛 미드는 자녀가 잘 자라가도록 돕는 부모역할은 건강과 신앙, 인격, 도덕성, 능력의 발견, 놀이하기 등을 통해 수행하는데, 자식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와 목적이 '교육'이 될 때, 부모의 불안과 불확실성은 현실로 나타난다고 보았다(Senior, 이경식역, 2020: 87-91). 즉 교육은 자녀 양육의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느끼는 불안, 죄책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은 부모 마음의 태도, 동기와 같은 내면적인 원인이라고 하겠다.

2.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부모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녀 양육은 어머니에 의한 가정교육이 중심이었다. 그러면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알아보겠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피조 세계의 창조자시며 그의 지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지식의 원천이며 근원이 되시기에 인간의 모든 영역은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박은호, 2022: 71). 그러므로 자녀 양육에 관한 모든 것을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신 30:16, 30:12). 성경적 의미에서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를 양육하는 인류 최초의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삼위의 온전함, 거룩함과 기쁨을 영위하는 안정적인 사랑을 경험한다. 그래서 사람은 가정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돌봄과 지지, 사랑을 경험하고 삶의 기초적인 자원과 역량을 얻는다(김규보, 2019: 81). 이 공동체 안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영원한 상에 참여하게 될 자의 마음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자녀의 성장이며, 성장을 돕는 일은 양육을 통해서이다. 신체와 인지, 정서의 체계적인 변화와 안정을 성장이라고 한다면, 성경적 관점에서의 성장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점차 뚜렷해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점진적인 안정과 구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 안정된 삶은 순종이 훈련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더욱 힘써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벧전 1:5-6)"는 베드로의 권면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는 (골 1:9-12)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의 좋은 예이다. 성장은 자신에 대한 태도와 도식이 뚜렷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이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다(고전 13:12).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따라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하나님은 말씀(명령)하셨고 부모는 그 명령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교육과정”으로 요약된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시며 가르침의 목적과 내용, 방법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 하셨다. ‘가르치라’는 명령의 목적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동일하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답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 배우는 것이며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신 10:12-13, 11:1, 19:9, 30:16). 이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집약되고(정중호, 1999: 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전 생애를 통해 그의 교훈을 배워 지키는 행동으로 드러난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배움이 내면화되어 능력으로 전환될 때 가능하다. 이 교훈에 따라 유대인은 신명기 6:4-9의 쉼마를 자녀 교육의 바탕으로 삼는다. 이 연구 또한 신명기 6:4-9의 본문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모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요구를 근거로 하여 자녀 양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모색한다(신 11:13-21 ; 민 15:37-41).

하나님을 알도록 교육하는 일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로 자녀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여 이것을 내면화하고 습관화하는 과정이다. 역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하고 구분된 순종의 삶을 적용하고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자신을 교육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는 의무를 부여하셨다(Monroe, 이원영 역, 2022: 21 ; 신 33:26). 그러므로 성경적 자녀 양육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학습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신명기 6:4-9을 근거로 하여 부모는 무엇을 가르치고 자녀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교육 과정을 개념화하여 성경적 자녀 양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을 제시한다.

3. 신명기 6:4-9에 나타난 자녀 양육의 성경적 근거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죽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교훈하며 그 교훈을 반복하기 위해 언약을 등사하여 지키라고 말한다(신 17:18). 신명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훈이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교훈과 언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과 함께 맺은 언약”을 다음 세대도 그대로 받아들여 반복적으로 낭송하여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는 “생존하는 날 동안” “세상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이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다(신 4:9-10, 5:2, 32:46-47).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가야 하는 과업이다. 신명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반복하는데, 특히 신명기 6:4-9의 짧은 구절 속에서 ‘자녀를 가르치라’는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명령을 받은 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곧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1) 신명기 6:4-5에 나타난 교육의 목적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명령한다. ‘들으라’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강한 요구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따라야 할 순종을 의미한다. 신명기 6:4-5에서 살핀 자녀교육의 목적은 첫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왜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셨는지 살펴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충성의 대상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혼합주의를 금지하라고 명령하신다(Mcconville, 2019: 180). 사람은 전 생애 동안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간다. 그 유혹들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다(출 19:6). 출애굽을 했던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에 물들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Calvin, 김종흡 외 역, 2009: 135).

둘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가나안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현대의 인간에게도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 가지 혼합된 동기와 갈망이 있다. 현대의 혼합된 동기와 갈망은 문화와 매체, 가치, 자신에 대한 집중, 자녀 양육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나안의 신들처럼 다양하다. 이것들은 학교 교육과 자녀교육의 영역에서 인간 중심적인 목표와 자율성으로 표현되고 권장된다. 마음을 사로잡는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결핍된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물질적 안정과 성공을 바라고, 이 목표를 위해 전심을 다해 전략을 마련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순종의 결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이 있다고 하신다(신 5:33, 6:24, 30:20 ; 잠 22:4).

지금도 하나님은 부모에게 거룩한 삶과 교훈을 지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이 시대의 자녀 양육의 중심이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마음이 순종과 신뢰로 무장되는 것이다(Calvin, 김종흠 외 역, 2009: 135 ; 김미경, 2000: 34). 신명기 6:4-5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교육의 목적이며, 자녀 양육의 목표가 된다.

2) 신명기 6:6에 나타난 자녀 양육의 내용과 방법

성경은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신 30:14).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한다. 왜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 Wolf는 ‘마음에 둔다’는 것은 사람이 배운 것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의미로(신 30:1 ; 렘 17:1 ; 단 7:28), 구별된 가치와 내적 동기를 요구하는 것이다(Wolf, 1974: 48). 또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한 사람의 지성과 의지와 성품의 중심인 마음에 내면화되는 것을 말한다(Wright, 전의우 역, 2017: 150). 그러므로 구별된 행동을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마음의 내적 동기와 가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내적 가치와 동기로 내면화된 말씀은 일생의 반역자가 된다(Miller, 1990: 105 ; 잠 6:20-22).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통해 그 사람의 충성과 예배의 대상을 알 수 있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Tripp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단언한다(Tripp, 조경애·조남민 역, 2002: 8 ; 마 6:24). 현대의 부모와 자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신에게 몰두하여 자기의 감정을 채우고, 자신을 높이며 쾌락과 물질적 안정, 명예와 행복을 바라는 동기와 갈망이 존재한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생명과 형통과 복을 주시게 위해서다. 즉 명령을 지켜서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신 5:29, 6:2-3, 29:9, 30:1-4). 신명기는 그의 교훈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언약적인 구조를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 세상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목적과 이유도 인간에게 복(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신 4:1, 4:40, 6:24, 30:10 ; 잠 22:4).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마음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새겨져 있지 않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고 계획하고, 자녀의 성공을 통해 보상받으려 한다(Tripp, 조경애·조남민 역, 2002: 47-52). 이 마음에는 여러 의도가 숨겨져 있다. 자녀를 향한 물질주의적인 성공과 명예를 위해 부모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의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의 계획대로 자녀의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 보상받고 존경받고 싶은 동기

가 담겨 있다. 이와 같은 동기와 갈망은 개인의 삶을 위해 당위성을 갖는 주제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가 자녀의 주인이 된 현상이다.

3) 신명기 6:7에 나타난 방법: 지혜와 대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신앙 전수와 양육의 방법은 명령을 전해 받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침은 ‘대화’ ‘지혜’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에서 강론의 사전적 의미는 가르치고 토론하라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의도적으로 나누고 대화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유대인의 자녀 양육은 구전에 의한 것으로, 쉼마를 매일매일 암송하는 것이다. 암송을 통해 소리 내어 읽음으로 스스로 내면화시킬 수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면화된 힘은 능력이 되어 늙기까지 행동의 추진력이 된다(잠 22:6). 부모와 자녀 간 대화의 유익은 첫째,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 하나님의 교훈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권면할 수 있다. 둘째,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통해 자녀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한다(히 3:12-13).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담긴 욕구와 동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길어 낼 수 있고(잠 20:5), 대화를 통해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 할 수 있으며, 잘못된 욕구와 동기에 대해 권면할 수 있다(살전 5:14).

신명기 6:7은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부모는 대화를 통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전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와 같으며, 복이 있다고 기록한다(잠 3:18). 대화는 상호관련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모의 자녀 양육 과정에서 전수하는 자와 전수받는 자의 역할 속에 나타난 상호관련성에 대하여 잠언은 “내 아들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길로 인도하라 (잠 23:19)”와 같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잠언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기초적인 틀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틀로 변화하며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적인 틀에 대한 배움을 준다(김희석, 2022: 234). 자녀가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여호와 경외라는 원칙을 붙잡고 자녀와 대화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4) 신명기 6:8-9에 나타난 이웃과 공동체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을 위한 범위를 개인, 가족(집)과 사회(바깥 문)까지 넓힘으로 공동체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일체가 된다(Merill, 신윤수 역, 2020: 195).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전인적인 헌신(5절)이 전체 공동체로 확대된다(Wright, 전의우 역, 2017: 151). Tripp은 자녀들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Tripp, 조경애·조남민 역, 2002: 76-77).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사회화되도록 가르쳐야 하고 본모기를 보여야 한다.

신명기 6:4-9의 핵심은 감정과 의지, 사고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반복하여 내면화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개인에게서 이웃과 공동체로 확대됨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강령을 실천하는 원천이 된다. 부모가 자녀 양육을 통해 가르쳐야 하는 내용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강령이어야 한다.

4. 자녀 양육에 방해가 되는 부모 마음과 변화

논의를 통해 하나님은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역할에 큰 가치를 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는 자녀 양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다. 부모는 아이들의 삶을 대변해 주고 지켜주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기 쉬우나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상담과 교육 영역에서는 의존성을 가진 유아가 점점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성장의 과제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로서의 성장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더 나은 신뢰와 자율적인 순종으로 자녀의 삶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한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자녀의 미래, 일관성 없이 새로 제시되는 양육 이론과 지침으로 불안을 느끼기보다는 부모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는 일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부모가 먼저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의 목표를 위해 부모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태도가 자녀의 양육과 성장에 어떻게 동일시되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정옥분·정순화, 2016: 56). 자신이 어떤 유형의 부모이며,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동기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자기 인식은 부모의 태도 변화로 이끈다(정옥분·정순화 2016: 36). 사람이 가진 태도와 신념, 사고와 가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준다. 현대 기독교인 부모의 정체성은 개인의 기대와 요구, 물질과 성공에 대한 관심, 행복 추구하고 같은 문화적인 힘과 비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해 제시되는 방향에 의해 정해진다. 미래는 사람에게

속한 능력이 아니므로 예측할 수 없다(전 3:11).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자녀의 미래를 계획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부모 마음의 태도는 양육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능력과 역할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탐욕적인 마음이다. 탐욕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하는 것과 같다(시 10:3).

성경적 자녀 양육의 출발은 변화된 부모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첫째, 부모의 마음에 담긴 혼합적인 동기,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가 새겨지지 않은 부모의 마음을 인식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의 의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자신을 새로운 주조 틀에 즉 새로운 존재로서 완전히 다른 판단 가운데 살아야 함을 말한다(Harvey, 2017: 296). 그 판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분별은 검증하는 것이다(Danker, 2017: 169). 부모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현대의 거대한 문화적인 힘에 물들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판단과 가치관을 분별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

둘째, 부모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격적 존재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자이다.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시 37:5).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신의 권위를 부여하시며 양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까지 명령하셨다. 자녀는 부모의 집중적인 교육으로 비범한 성취를 이루어 내는 ‘트로피 아이’로서 부모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부모 또한 온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은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한다.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세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과 기술을 갖추도록 양육하는 양육의 본질을 자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새 마음에 그의 법을 새기어 부모의 마음을 바꾸실 것을 약속하셨다(렘 31:33 ; 겔 36: 26-27).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 또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만이 자녀들의 확실한 안전이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그러므로 변하는 현실 세계와 부모 자신의 계획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을 바라볼 때, 부모 마음의 태도와 동기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5. 말씀의 내면화를 통한 유아기 자녀 양육

지금까지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은 하나님의 교훈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성경의 명령임을 확인하였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내면화되도록 가르쳐서 전 생애를 통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말씀은 일생의 반려자가 된다. 그러나 가르침을 통한 학습이 내면화되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므로 양육을 통해 자녀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칠 신앙과 행동 기반이 일찍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신앙발달이론을 주창한 Ronald Goldman과 James Fowler는 유아기 신앙교육의 당위성을 주장한다(정희정, 2023: 94). 인간의 발달 특성을 볼 때 유아기는 성경적 자녀 양육의 핵심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유일하신 분”임을 가르쳐 알게 하는 학습을 시작해야 하는 발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유아에게 하나님 경외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고 한다(Monroe, 이원영 역, 2022: 84). 유아기의 급격한 기억과 언어의 인지 발달은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유아기를 전 생애 발달을 위한 성경적 자녀 양육의 목표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발달 단계로 보고자 한다.

1) 자녀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유아기 발달 특징

인간 성장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는 심리학 용어는 ‘발달’이다(정갑순, 2009: 40). 인간발달의 개념으로 ‘유아기’는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유아기는 신체적·인지적·언어적·정서적으로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다(곽금주, 2016 ; 신명희 외, 2019: 184 ; 조복희 외, 2017). 인지·사회적·정서적 발달이 왕성한 유아기의 특성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면화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McQuitty는 유아기에 하나님, 자신, 타인, 가족, 자연 세계에 관한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칠 것을 강조한다(McQuitty, 2008: 285-302). 유아기 신앙의 기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유아기 사고의 발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 죄, 부활, 예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김성원, 1999: 71).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유아기 발달 요소 중 먼저 사고와 기억, 언어에 해당하는 인지 발달의 측면에서 보면, 유아기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상개념과 상관관계를 가진 다양한 특징들을 표상할 수 있는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한다(Siegler & Alibali, 박영신 외, 2007: 288). 표상적 사고는 유아가 상징을 사용하여 대상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표상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타인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다. 이에 유아기에 ‘하나님’ ‘예수님’ 등으로 명명하여 기독교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권기수, 2013: 16).

유아의 기억발달은 유아의 주의 집중력 향상을 수반한다. 유아는 자신의 지식과 친숙한 환경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경험을 이해하고, 처음 본 것을 기억할 수 있다(신명희 외, 2019: 204). 이러한 유아들의 기억발달은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인지 발달 중 유아의 언어발달은 음절, 단어, 문장을 결합시키는 문법적 지식도 급속하게 발전하여 3세경에는 짧은 문장을 말하지만, 5-7세의 유아는 어른 처럼 말하며 상호관계를 이해한다(성현란 외, 2018: 292). 유아기의 언어발달은 자기를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할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가능하다(성현란 외, 2018: 384 ; Siegler & Alibali, 박영신 외, 2007: 329-339). 또 유아의 언어발달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한다. 유아기의 언어와 호기심을 동반한 사고 발달의 통합은 진리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며, 그것을 언어로 질문할 수 있어 유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다(Zuck, 1997: 19-20 ; 정갑순, 2009: 43). 이 시기의 유아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기억한 내용을 혼잣말로 되풀이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이야기한다(Siegler & Alibali, 박영신 외, 2007: 275). 따라서 유아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스토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듣고 기억하고 대화할 수 있다.

둘째로 유아의 사회성 발달은 유아가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자 한다. 친구와의 우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발달한다(송영란·오영희, 2006: 178). 유아기 발달 중 타인과 자기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여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으로 개인으로부터 사회적인 공동체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유아기 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주변으로 그 사랑을 확장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더불어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 시킬 수 있다. 유아기의 사회적 행동의 발달은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타인과 ‘나누는 행동’이 가능하다(송영란·오영희, 2006: 178). 이 같은 유아의 행동 발달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해 동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유아기 발달 단계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형성하도록 양육해야 한다.

4-5세 된 유아는 옳고 그름을 이해하는 도덕성이 발달한다(신명희 외, 2017: 217). 잠언 20:11은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의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고 말씀한다. 이에 유아기는 하나님의 말씀 수행에 따른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가능하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고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동력을 형성할 수 있다.

2) 자녀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유아기의 본성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목적은 신체와 인지, 심리 사회적 발달의 특성에 맞게 신앙을 전수하여 전 생애 동안 구별된 삶 곧 성화의 삶을 위해서다. 신체와 인지, 사회적 발달이 아니라도 사람은 본성과 모방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로마서 1:19-20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기록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안다는 뜻이다. Calvin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종교의 씨’로 인간의 마음속에 원래 주어져 있다고 한다(Calvin, 김종흡 외 역, 1989: 30).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또 알기 위해 질문을 하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피조물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유아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은 유아에게 내재 되어 있는 본성에 물을 주고 돌보아 전 생애를 지나며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골로새서 1:16-17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기록하고, 골로새서 2:3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기록한다. 유아기의 상상력과 많은 질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올바르게 탐색하고 지각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그러므로 유아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도서 3:11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기록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영원에 대해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영원하시다는 의미이다(Fredericks, 권대영 역, 2018: 152). 유아들도 영원과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한다. 유아들의 영원과 죽음에 대한 관심과 질문에 대해 부모는 자녀가 영원과 죽음에 대해 이해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자녀에게 제대로 언급하지 않거나 부모가 영원과 죽음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설명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유아기 아동은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지,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다(Zuck, 2003: 20). 그러므로 유아기는 신앙발달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시기다. 성경적 근거에 의해 사람은 잉태에서부터 하나님을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Bandura에 의하면 유아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여 행동을 모방한다(김미경, 2000: 115). 유아기 자녀는 모방학습이 가능하기에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따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를 습득할 수 있다. 이처럼 유아기 아동의 특징은 본 것과 들은 것

을 기억하여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고 부모가 가진 태도와 가치관, 경건 행동, 태도들을 동일시하여 내면화시킨다. 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통한 학습 가능 여부 외에 자녀 양육은 어릴수록 영향이 크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는 일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일찍부터 훈련하여 내면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유아기 발달 단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양육자와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일찍부터 나타난다. 유아는 자기 마음을 숨길 줄 알고, 친구와 적을 구분할 수 있고,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이기적인 필요를 정확히 안다. 2-3세의 유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떼쓰는 일이 빈번하여 양육자를 지치고 힘들게 한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와 같은 자기중심성 위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며 성장한다(시 51:1 ; 전 7:9).

유아기의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의존성과 신뢰감이다(정희영 외, 2007: 55). 유아는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 주는 존재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존한다. 유아들의 의존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워 알게 되면 전적으로 믿으며 의심하지 않는다(마 18:1-4). 이처럼 유아기의 아동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신앙을 형성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전적 신뢰와 믿음이 내면화되어 전 생애 동안 그 영향 아래 살도록 가르치는 것처럼 가치 있는 교육은 없다. 성경은 인생을 광야로 비유한다. 광야는 물이 없고 생필품이 없는 곳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이다(고전 10:1-4 ; 시 106). 사람이 인생의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면화된 마음의 습성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근원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배우지 못하면 성공, 명예, 물질과 같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충성과 예배의 대상을 바꾸게 된다.

성경적 자녀 양육의 최적의 시기로 유아기를 제시하는 이유로 유아의 발달 특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본성 외에도 유아기는 아동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아동기는 사회적 공동체로 이동을 시작하고 지능적으로는 논리가 성립되는 기간이다. 유아기는 진리에 대한 수납에 있어 전적 수납이 가능하나, 아동기는 유아기에 비해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권리 주장이 더 강화된다. 그러므로 순종의 교육과 훈련은 아동기에 비해 유아기가 쉽다.

3) 자녀양육을 통한 유아기 자기 개념 형성의 기초

내면화는 반복을 통한 가르침(학습)과 훈련에 의해 이뤄진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성경의 교육은 ‘언제나’ ‘항상’ ‘반복’해서 하는 것이다. 유아기는 자기 외에 타인을 인식하기 시

작하는 발달 단계로 가정에서 부모와의 시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아동기 발달 이전의 유아기 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분된 삶의 개념을 형성하도록 훈육해야 한다.

자아 개념의 변화는 각 성장단계의 특성이다. 유아기와는 달리 아동기의 아동은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독특한 특성으로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하여 신체 특성이나 행동, 소유물, 자신을 뽐낼 수 있는 유능감을 자신과 연관 짓기 시작한다(신명희 외, 2018: 2, 62). 청소년기에는 자신에 대한 특성에 의해 자아 개념이 더 확장되어서 자존감과 외모라는 특성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성장과 함께 타인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자아감에 대한 사회 비교는 점차적으로 잘못된 자아 개념으로 확장된다. 곧 잘못된 자아개념은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과 같은 비교 의식으로 표현되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걸림이 된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현대 상담의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독과 자해, 청소년 비행, 섭식장애, 우울증과 같은 병리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자녀 양육의 목표로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 현상이 70년대 이후 계속되었지만, 자존감 높이기를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 오히려 자신의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만을 발견한다(박은호, 2022: 20). 허지원은 현대의 자녀 양육은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양육 목표를 가지지만 자녀는 오히려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을 가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허지원, 2022: 18).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한 결과이다.

현대의 자녀 교육의 지침과 방향은 자녀의 강점과 재능을 일찍 발견하는 것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타인에 대해 냉담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자기애가 강한 아이를 만든다(조세핀, 2019: 75). 자녀 양육의 목표와 내용의 영향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신에 대해 집중하는 영역은 확장되고, 믿음과 순종의 영역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유아기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신체, 자신의 고유성과 하나님의 언약적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성인에 비해 유아들은 진리에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유아들은 잘 가르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Zuck, 2003: 20).

4) 유아기 자녀 양육과 부모의 마음에 대한 성경적 적용

본 연구는 부모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자녀 양육 지침의 정보 수집이나 훈련의 부족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가 없는 부모의 마음이 더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현실은 언제나 과거의 이론이 가고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유행하는 이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적 가치와 세계관을 굳게 잡아야 한다. 유아기 자녀의 삶의 틀과 방

향을 잡기 위한 적용은 이러하다.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해 개인주의와 자율성, 권위에 대한 도전과 무관심 등으로 회자된다. 이는 가족 형태가 부부중심에서 자녀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자녀 양육에서 부모가 자녀의 선호와 선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 산물이기도 하다. 유아기의 ‘떼쓰는 아이’를 예로 들면, ‘떼쓰는 유아’는 소리를 지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제멋대로 하고 고집을 피우며 온다. 과거의 자녀 양육에는 체벌이 포함되었다면 현대 교육에는 체벌이 점점 금해지고 있다. 1979년 스웨덴에서는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자녀 체벌을 금지했고 그 후 자녀의 인권을 위한 체벌 금지법은 확산되었다. 체벌은 아이의 지능 발달을 늦추고 IQ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고, 수치감과 공격성을 가져온다는 연구가 있다(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16 ; The Science Times, 2023).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 하신다(히 12:5-11).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멀리 쫓아내고(잠 22:15), 아들에게 희망이 있을수록 징계한다고 기록한다(잠 19:18). 징계하라는 말은 처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경계와 한계를 정해 주는 것으로 처벌과 징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에베소서 6:4의 본문은 부모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가 받은 권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한다. 유아기는 전 생애를 위한 마음의 틀을 형성해 가는 시기다. ‘떼쓰는 유아’를 훈육하거나 바로잡기 위해 책선하지 않는 부모는 권위가 없고, 자녀는 말을 듣지 않는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자녀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기죽지 않고 자라야 자존감에 손상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부모의 생각과, 또 좋은 환경과 무조건적인 수용은 자아를 완성한다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부모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집을 피우는 아이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 ‘떼쓰는 아이’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며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는 즉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친구들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에서 위기를 맞을 때, 학업의 실패를 경험할 때 누가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오히려 살아가면서 누구나 맞게 되는 위기와 좌절을 경험할 때, 사회적 비교와 열등감, 분노로 반응하게 된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개념이 내면화된 아동은 유아기에 비해 더 익숙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성과 직업의 문제가 대두되는 청년기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결혼과 직업적 소명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익혔기에 이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자녀의 미래가 있다는 확신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가 마음에 있는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이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부모의 준비된 순종은 자녀의 미래를 대비시키고 결정한다. 말씀은 자녀들이 첫 계명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지킬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엡 6:1-3).

주일학교 청소년 부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뜻을 정한 다니엘(단 1:8)'을 조명해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요시아의 개혁에 영향 받은 부모에게서 찾을 수 있다. 다니엘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로 시작한다. 학자들은 이때가 B.C. 605년이라고 동의한다(Kenneth, 2010: 24 ; 황원하, 2018: 20).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B.C. 605년에 포로가 된다. 다니엘은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개명이 되었고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지만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노래한다(단 2:20-23). 다니엘이 정치적, 문화적 변화 속에서도 평생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근거는 유다의 16대 왕 요시아(B.C. 640-609)왕에 의한 유다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 요시아 왕은 율법 책을 발견하고 깨달은 후에 모든 무리에게 율법을 읽히고 백성은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한다(왕하 22:15-23:3).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 요시아는 이미 15년을 통치하였고 다음 16년 동안의 요시아로 인한 개혁은 그의 부모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다니엘은 개혁된 부모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한다(Gangel, 2010: 26).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평생의 행적을 통해 어린 시절의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III. 결론

성경적 자녀 양육을 위한 논의를 위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교육의 목적과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자녀 양육의 목적과 내용은 동일하게 부모가 가진 가치관과 신념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현대는 자녀 양육을 위한 정보가 방대하지만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어야 한다. 이에 신명기 6:4-9을 중심으로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확인하였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는 교훈을 가르치도록 명령하셨다. 신명기 6:4-9에서의 자녀 양육의 목적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다. 자녀 양육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

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가르치라’는 명령 이행은 부모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겨 보유하고 있을 때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 부모의 정체성은 가르치라는 명령을 전해 받았으며,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도록 부르신 자들로, 가르치는 책임이 있으며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Tripp, 조경애·조남민 역, 2002: 58-61). 부모의 책임은 오직 홀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Tripp, 조경애·조남민 역, 2002: 49). 성경적 자녀 양육의 내용의 전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부모가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신명기 6:4-9에 나타난 자녀 양육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가르쳐서 그것이 체화되고 내면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방식에 의해 전수된다. 시편 78:1-8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고 기록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들은 자의 책임은 조상들에게 전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자손에게 전하는 것이다(시 44:1).

둘째, 기독교인 양육자들도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본 연구는 양육자의 심리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양육자의 마음의 태도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부모의 사회적 고립, 배우자와의 관계, 양육 스트레스 등에서 찾고 있다(지성애, 2016: 17). 그러나 성경적 자녀 양육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Tripp, 김윤희 역, 2017: 92-93). 그러므로 성경적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자녀에게 성공과 행복이 보장된 미래를 대비해 주고자 하는 통제 욕구, 보상과 성공의 동기들이 담긴 부모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을 부모가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거나 정보를 숙지하지 못한 정보수집의 부족에 둔다면 양육자는 더 큰 실패감을 경험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자녀를 가르치는 일은 한 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내면화될 때 효율적인 활용과 실천이 가능하다. 내면화되는 일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정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언어와 사고, 기억이 급속하게 발달 되는 유아기는 하나님 말씀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된다고 논의하였다. 또 타인에 대한 모방력,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유아의 사회 정서의 발달은 사회화와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의 이웃 사랑을 위한 초석이 된다고 보았다.

현대사회와 문화는 자율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있다는 것

을 강조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기 시작하여 점차 자기중심성과 자율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성장하는데, 죄의 본성을 가진 아동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소유물과 외모, 성공의 여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또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나 우월감, 선택과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가 자리매김하며 타인과는 불편한 관계, 고통, 갈등 등으로 확장된다. 그러나 성경적인 성장은 점차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가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어려서 마음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교훈이 삶의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진리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일은 유아기의 성경적 자녀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존재임을 내면 화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급변하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불안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상에게 맺었던 약속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고 따를 때, 약속을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다(히 12:1-2; 고전 9:24-27). 경주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다. 이기기 위해서는 시작이 견고해야 한다. 이에 자녀 양육을 위한 신명기 6:4-9에 나타난 원리에 대한 강조는 시대를 초월하여 중요하다. 이 연구는 성경적 자녀 양육의 기초를 유아기로 설정하여 성경적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말했다.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서는 부모 마음의 태도의 변화를 요청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회귀하도록 돕기 위해 부모의 마음을 성경적으로 인식하고 직면하여 마음의 변화를 도모하는 구체적인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참고문헌

- 강대이·황의무 역 (2019). **신명기**. McConville, J. G. (2010). *Deuteronomy*. 서울: 부흥과 개혁사.곽금주 (2016).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곽홍석 역 (2019). **신명기 강해**. Calvin, J. (2013). *Sermons on Deuteronomy*. 서울: 서로사랑.
- 국가교육평생진흥원 (2014). **유아원 3-5세 학부모를 위한 자녀 교육**.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구경선 (2018). **유아교육 사상사**. 서울: 교육아카데미.
- 권기수 (2013). **유아의 기독교 개념의 측정 및 발달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대학원.
- 권대영 역 (2018). **전도서, 아가**. Fredericks, D. & Estes, D. (2010). *Ecclesiastes & the song of songs*. 서울: 부흥과개혁사.
- 권미량 (2015). **기독교 가정과 영유아교육**. 고양: 공동체.
- 김규보 (2019). 헤르만 바빙크(H.Bavinck)의 언약이해와 가정사역: 성경적 가족생활교육을 위한 언약의 실천신학적 함의. **복음과 상담**, 27(1), 81-120.
- 김남철 (1998). **신앙 발달 이론으로 본 유대인의 신앙교육**. 서울: 도서출판국제 문화.
- 김미경 (2000). **기독교가정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 김성원 (2023). 유아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신앙과 학문**, 28(3), 69-90.
- 김영옥 (2016). **부모교육**. 고양: 공동체.
- 김윤희 역 (2017). **완벽한 부모는 없다**. Tripp, P. (2016). *Parenting:14 Gospel Principles That Can Radically Change Your Family*. 서울: 생명의 말씀사
- 김종흡·신복윤·이종윤·한철하 역 (1989). **기독교 강요**. Calvin, J. (1536).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서울: 생명의 말씀사
- 김진선 역 (2010). **다니엘**. Gangel, K. (2002). *Daniel*. 서울: 디모데
- 김한원 역 (2017). **신약성서 그리스 사전**. Danker, F. W. *The Concise Greek-English Lexion of the New Testament*. 서울: 새물결 플러스
- 김희석 (2022). 잠언에 나타난 공동체 교육의 다양한 형태. **신앙과 학문**, 27(3), 233-253.
- 박영신 역 (2007). **아동 사고의 발달**. Siegler S. R.& Alibali M. (2005). *Children's Thinking*, 서울:아카데미프레스.
- 박은호 (2022). 현대사회 변화에 따른 성경적 상담의 방법: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103.
- 송영란 (2005). **유아의 신앙 발달과 친사회적 행동 발달 증진을 위한 성경동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송영란·오영희 (2006). 성경동화 활동이 유아의 신앙발달과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26(60), 175-198.
- 신명희·서은희·송수지·김은경·원영실 (2018). **발달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윤수 역 (2020). **신명기**. Merrill, E. (1994). *Deuteronomy*. 서울: 부흥과 개혁사.
- 심성경 (1996). 어머니-유아 의사소통과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47-59.
- 이경식 역 (2020). **부모로 산다는 것**. Senior, J. (2014). *All joy and no fun*. 서울: 알에치코리아.
- 이원영 역 (2022). **코메니우스 유아학교**. Monroe, W. S. (2016). *Comenius' School of Infancy*. 서울: 학지사.
- 이종숙·신은수·안선희·이경옥 역(2014). **아동발달**. Berk, E. L. (2008). *Child Development*.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하정 (2005). 조부모 세대와 모세대간 자녀 양육 문화 변화에 관한 질적연구. **생태유아교육학회**, 4(1), 141-162.
- 전병근 역 (2018).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Harari, Y. N. (2013).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서울: 김영사
- 전의우 역 (2017). **신명기**. Wright, C. J. (1996). *Deuteronomy*. 서울: 성서유니온.
- 정갑순 (2009). **유아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정옥분·정순화 (2016).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정중호 (1999). 하나님과 사랑과 자녀 교육, 신명기 6:4-9. **성경연구**, 5(12), 24-31.
- 정희영·정갑순·김동춘·김미경·강은주 (2007). **기독교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정희정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본 기독교 부모 교육의 방향성 연구. **신앙과 학문**, 16(4), 195-222
- 정희정 (2016). **기독교인을 위한 부모교육**. 서울: 소원북스.
- 정희정 (2023). 하나 바이블 유치부 공과 교재 분석. **성경과 신학**, 106, 91 - 123.
- 조경애·조남민 역 (2002). **자녀의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Tripp, T. (1996). *Shpherding a Child's heart*. 서울: 디모데.
- 조복희·도현심·우가효 (2017). **인간발달**. 파주: 교문사.
- 조세핀 김 (2019). **교실 속 자존감**. 서울: 비전과 리더십.
- 지성애 (2016). 유아기 부모교육의 중요성. **열린부모 학회**, 16, 1-28.
- 진다희 (2022).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가 겪는 양육 경험의 의미 탐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채경선 (2006). **기독교 부모의 자기 성장을 기반으로 한 부모역할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종훈 역 (2003).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라**. Zuck, R. (1997). *Precious in His sight*, 서울: 디모데.
- 팽영일 (2017). **유아교육사상사**. 서울: 교육과학사.
- 한유진·강민수·안복희 (2019). 유아기 자녀와 부모 간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11(4), 87-110.
- 한용진·최정희 (2011). 신문기사에 나타난 자녀교육 인식 변천: 1920년대-1990년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 연구**, 17(3), 175-204
- 허지원 (2022). **나는 아직 나를 모른다**. 서울: 김영사.
- 황규명 역 (2004).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 Tripp, P. (1997). *Age of opportunity*. 서울: 디모데.
- 황원하 (2018). **언약의 관점에서 본 다니엘서**. 평택: 교회와 성경.
- Hays, S. (1998).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Boston: Yale University Press.
- Harvey J. (2017). *Romans*. Nashville, Tennessee: B&H Academic.
- Martin C. A. & Colbert K. K. (1997). *Parenting: A lifespan perspective*. New York: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 Miller, P. D. (1990). *Deuteronomy*. Louisville: Jojn Knox Press.
- Wolf, H. W. (1974). *Anthropology of the Old Testament*. fortress press.
- Kahneman, D. (2004). *"Toward National Well-being Accounts"*, **American Review** 94, no 2

신명기 6:4-9의 '가르치라'는 명령을 통한 유아기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한 고찰: 부모의 마음을 중심으로

Discussion about the purpose and details of biblical parenting during infancy
through a command to teach in Deuteronomy 6:4-9: Focused on parent's hearts

박은호 (충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말씀의 진리를 현대의 상황과 주제에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날 자녀 양육과 부모교육에 대한 여러 이론이 개발되고 제시되고 있지만, 이론과 방법의 다양함과 변화 속에서 오히려 부모는 혼란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느낀다. 부모의 혼란과 불안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녀 양육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신명기 6:4-9에서 자녀를 '가르치라'는 명령을 부모에게 주셨다는 성경적 근거를 통해 자녀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성경적 자녀 양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자녀 양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자녀 교육의 내용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셋째, 자녀 양육의 방법은 교육의 내용이 학습을 통해 내면화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이 연구는 하나님의 '가르치라'는 명령을 학습하고 내면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유아기로 제안하고, 그 근거를 유아기의 언어발달, 모방력과 사고력 등의 인지발달의 특성에 두고 있다. 가르치라는 교육 명령의 실천 과정의 전제는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스승이며 교사로 영향을 미치는 자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신명기 6:4-9을 통해 성경적 자녀 양육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대화와 권위를 통해 내면화하도록 돕는 과정이며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자녀 양육, 가르치라는 명령, 하나님 사랑, 마음의 내면화, 유아기